

---

第79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5年8月18日(金)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서울市立大學校業務報告의件
  2. 서울特別市教育廳業務報告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市立大學校業務報告의 件 ... 1面
  2. 서울特別市教育廳業務報告의 件 ... 33面
- 

(10時 29分 開議)

○委員長 安順德; 座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79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2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催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1. 서울市立大學校業務報告의件

○委員長 安順德; 議事日程 第1項 市立大學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市立大學校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長 金鎮炫; 市立大學 總長을 맡고 있는 金鎮炫입니다.

우선 완전한 의미의 地方自治時代에 서울市議員으로 當選되

신 安順德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 滿腔의 祝賀를 올립니다. 또 동시에 오늘 저희 市立大學을 위해서 業務報告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委員長님 이하 委員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市立大學은 서울市가 農業社會로부터 工業社會로, 그리고 지금은 世界的인 大都市로 변모하는 過程中서 많은 發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마디 마디마다 단절과 屈折의 歲月과 어려움도 겪어 왔습니다. 또 서울市の 유일한 大學으로서 서울市와 教育部 사이에 孤兒와 迷兒로서 방황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大學教育環境의 근본적인 變化로 인해서, 즉 大學教育 人口構造의 근본적인 變化, 또 社會의 大學教育에 대한 需要의 근본적인 變化, 또 大學教育 教授人力 供給能力의 근본적인 變化 이러한 여러 가지 大學教育을 둘러싼 근본적인 環境 變化로 인해서 저희 市立大學으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正體性和 位相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매우 轉機的인 局面에 다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市立大學技의 教授 一同과 저희 市立大學의 식구 한가족들은 이제 市立大學을 都市學의 中心大學으로서 都市學의 綜合教育機關, 都市學의 綜合研究機關, 그리고 市民社會와 市民文化 發展에 도움이 되는 綜合된 知識 情報 資料의 供給處로서 새로 나고자 합니다.

우리 80年 市立大 歷史에서 市立大學의 正體性を 새로 확립하고 완전한 自治時代에 綜合都市學研究메카로 成長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轉機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參席한 저희 市立大學의 幹部들을 紹介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幹部紹介:敎務處長 姜哲圭, 學生處長 車岷煥, 企劃研究室長 金尙培, 事務局長 閔庚台, 서울學研究所長 安斗淳)

이상 저희 幹部들을 紹介했습니다.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서 諒解해 주신다면 자세한 業務報告는 저희 金尙培 企劃研究室長으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企劃研究室長님께서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研究室長 金尙培; 서울시立大學校 企劃研究室을 맡고 있는 金尙培입니다.

尊敬하는 安順德 委員長님 그리고 文化敎育委員會 여러 委員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市立大學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大學의 業務를 報告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業務報告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資料를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委員님들 보시기에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부디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서울市立大學校의 主要業務現況을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準備한 報告 資料의 순서는 크게 두 部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선 저희 大學의 敎育目標, 沿革, 組織, 施設與件, 財政 等에 대한 개략적인 現況을 報告드리고 다음으로今年度에 저희 大學이 현재 推進하고 있고 앞으로 推進해 나갈 主要業務 內容들에 대해서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시립대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大學의 一般現況과 앞으로의 推進計劃을 報告말씀 드렸습니다. 미비한 점 많을 줄로 아오나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時間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市立大學校 業務報告에 대하여 먼저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時間을 아끼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質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梁東錡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梁東錡 委員; 道峰 第1選舉區의 梁東錡 委員 입니다.

여기 沿革을 보게 되면 서울市立大學校로 校名이 變更된 것이 81年度이고 綜合大學校로 昇格을 한 것이 87年度인데, 그러면 현재 約 8年 동안이라는 歲月이 흘렀는데 오늘 業務報告를 받고 보니까 不足한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施設도 不足할 뿐더러 教授도 185名이라는 숫자가 不足해서 어떻게 運營을 했는지, 그 동안에 8年이라는 綜合大學으로 昇格해서 많은 歲月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施設과 教授 不足 이런 등등으로 인한 隘路事項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다음에 저는 學軍團에 대해서 質問하고자 합니다.

學軍團을 選拔하는 過程에서 어떻게 해서 選拔하는지, 그리고 每年 任官하는 숫자는 몇 名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네요. 그래서 任官해서 現地에서 將校生活을 했을 때 그

야말로 市立大學校 出身들이 잘하고 어떤 별다른 事故 없이 一般 士官學校 또 삼사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宰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善宰 委員; 財政自立도가 4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學生들의 登錄金은 一般大學과 어떻게 差異가 있는지, 國立大學과는 또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財政自立도를 높일 수 있는 方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施設物에 대해서 보면 老朽建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된 것인지, 지금의 安全度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韓植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鄭韓植 委員; 銅雀 第5選舉區 出身 鄭韓植 委員입니다.

바야흐로 開放化 時代를 맞이해서 外國大學이 속속 上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서울시立大의 對處方案이 무엇이며 그 方案이 다른 大學과의 差別化된 점을 強調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大學의 對處方案은 이러한데 우리 서울시立大의 對處方案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外國大學이 上陸을 해도 一流大學으로 拔돋움할 수 있다라는 客觀的인 證據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組織圖를 보겠습니다.

各種 運營委員會, 大學發展委員會가 있다고 아까 報告를 해

주셨는데 21世紀企劃委員會하고 業務가 重複이 되는지, 아니면 서로의 機能이 다른지를 答辯해 주시고, 大學發展委員會가 常設機構라면 그 運營實態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大學發展委員會하고 21世紀企劃委員會의 豫算, 다음에 執行實績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歲入·歲出 實績을 보면 大學發展을 위한 研究開發費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教授研究費, 研究補助費는 나와 있습니다만 大學發展을 위한 研究開發費 이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지금 業務報告를 즉 훑어봤는데 전부 다 百貨店式 羅列方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本委員이 要求하는 것은 一目瞭然하게 볼 수 있도록 現 市立大學校의 財産目錄 또는 貸借對照表 이것을 밝혀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施設은 이러한데 우리의 現實의 財産目錄은 이렇소. 때문에 어떤 施設이나 財産이 더 필요해요라고 說明을 해주어야지 不要不急한 것을 가려낼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데 이것은 백날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業務報告 內容 中에 市立大學校에서는 市政發展에는 상당한 寄與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市議會의 發展을 위해서는 거의 寄與를 한바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市議會 發展에 過去에 어떠한 寄與를 했는지 그 實績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寄與한 바가 없거나 미미했다면 向後 市議會 發展에 어떠한 寄與를 하겠다라는 計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委員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林靜枝 委員, 말씀하세요.

○林靜枝 委員; 民主黨의 林靜枝 委員입니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했습니다. 市立大學을 한번 訪問하고 싶고요, 招請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學 國際세미나의 記錄이 있는지, 있다면 그 記錄을 보고 싶고, 또 앞으로 그런 計劃이 있으면 參與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劉大運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市立大學校에서도 特殊大學院을 運營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各 大學이 공히 같은 問題이긴 합니다만 特殊大學院의 運營이 상당한 問題點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말이지요, 國家的으로 잘못 하면 指彈의 對象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인데 市立大學에서 현재까지 特殊大學院을 運營하면서 財政運營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報告가 전부 빠져 있는 그런 狀態이고, 그것을 答辯하시기가 어려우시면 書面報告라도 차후에 해주시고요.

방금 林靜枝 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具體的으로 우리 文化教育委員會 委員長 以下 委員님들은 이번 會期가 끝나는 대로 市立大學에 좀 招請을 해서, 우리가 決議해서 나가서 現場視察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오히려 研究, 探究하는 그런 機關을 視察이라는 目的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總長님 以下 各 幹部님들이 招請을 해서 隘路事項을 현실감 있게 周知시켜주고 같이 共同으로 發展시켜 나가자는 그런 側面이 提起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部分에 대한 對策을 講究해서 우리 委員會 委員長님이나 幹事에게 通報를 해서 빠른 時日 內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狀況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魚潤慶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魚潤慶 委員; 江東 出身 民主黨 魚潤慶 委員입니다.

學生福祉의 增進이라는 쪽에 상당히 눈을 씻고 아무리 봐도 學生들에 대한 寄宿舍 關係는 전혀 제가 發見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빠졌는데 寄宿舍가 있으면 寄宿舍에 과연 學生들이 얼마나 지금 收容이 되고 있고, 어떻게 福祉次元에서 대우를 하고 있으며, 또 아직까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計劃을 가지고 있는지 그 計劃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學生들이 卒業을 하고 社會에 나가는데 특히 서울 市立大學校 하면 産學에도 상당히 긴밀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外部에서는 알고 있는데 就業에 대한 어떤 統計나 뭐 이런 것도 좀 答辯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市立大學에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學事懲戒나 學生들로 봐서는 불행스러운 당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숫자나 學事指導關係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말씀해 주십시오.

林鐘化 委員님, 말씀하세요.

○林鐘化 委員; 麻浦 4選舉區 林鐘化 委員입니다.

서울市立大學의 關係者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지금 서울市立大學校에서 醫料大學에 60名, 法政大學에 20名の 增員要請을 했는데 제가 業務報告를 듣기로는 財政自立度도 40.2%뿐이 안 되고, 教授도 316名 中 166名뿐이 確保가 안 됐다고 報告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問題點이 많은 것으로 指摘됐는데 醫科大學을 設置하려고 하면 많은 財源도 필요하지만 施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있는 大學을 좀더 開放하고 活用해서 大學다운 大學으로 面貌를 갖추면서 改善을 해야지 이렇게 增員만 要請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疑問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市立大學은 서울에 있는 유일하게 서울市에서 支援을 받는 大學으로서 總長 以下 모든 幹部께서 적극적으로 對處해서 지금 보면 私學들이 열심히 學校育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參與해서 뭔가 서울市立大學이 世界的인 名門으로 發展될 수 있도록 좀 誘導하는 方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를 終結하고, 答辯을 準備하기 위하여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1時 24分 會議中止)

(11時 42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順德; 座席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時間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고 一目瞭然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 좀 細部的으로 자세히 해 주실 것은 書面으로 答辯을 주시는 것을 委員님에게 諒解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長 金鎮炫; 委員님들의 애정어린 質問과 채찍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저도 就任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또 우리 事務局長도 어제 교체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또 大學이라는 데가 行政이 좀 미숙한 대목이 많이 있는 데가 돼서 요령 있게 報告를 못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도 저희들로서는 성의껏 答辯을 올리겠습니다만 또 혹시 大學이라고 하는 特殊한 組織이 되어서 行政의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 같이 매끄럽지 못하면 이것도 역시 좀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委員님께서 諒解를 해 주신다면 企劃研究室長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答辯을 드리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또 해당되는 局·處長으로 하여금 追加答辯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委員님들께서 諒解해 주신다면 企劃研究室長으로 하여금 조목조목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研究室長 金尙培; 總長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委員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質問들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大學에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質問해 주시는 委員님들이 여간 고맙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우선 質問해 주신 순서대로 答辯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委員長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學校에 돌아가서 書面으로 報告올리겠습니다.

梁東錡 委員님께서 저희 大學의 施設水準이라든지, 教授要員

이 太不足인데 어떻게 견뎌왔는지 隘路點을 말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報告말씀때 드렸습시다만 지금까지 施設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고 教授要員도 太不足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저희 大學의 學事管理가 主務部署가 教育部로 되어 있고 서울市에서는 財政을 責任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總長님께서 序頭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大學이 어떻게 보면 매우 迷兒내지는 孤兒의 위치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教育部로부터 教授 充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까닭이 教育部로서는 당신들이 責任지고 있는 國立大學에 우선적으로 配定을 하게 되는 問題가 있었고 서울市에서는 教授 充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位置에 있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充員率이 매우 낮아진 형편에 있었습니다.

施設問題는 서울市가 그 동안 여러 가지 建設 分野에 投入 되어야 할 財源들이 많았기 때문에 教育 부분에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每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要求를 합니다만 施設現況이 지금까지 劣惡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그래서 今年度부터는 뭔가 劃期的인 轉機가 마련되어야 되 겠다라고 하는 趣旨 아래 여러 가지 方案을 가지고 서울市 當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施設이 擴充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教授 充員問題도 아까 報告말씀 드렸습시다만 今年度 來年度에 걸쳐서 90名の 教授를 充員할 計劃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99년까지 400餘 名の 教員을 充員하는 計劃을 가

지고 市當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市當局과의 協調뿐만 아니고 더 중요하게도 여러 委員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이 問題가 解決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學軍團 問題를 質問해 오셨습니다.

選拔 過程은 2學年末에 일단 支援을 받습니다. 그 支援者가 항상 國防部로부터 配定된 숫자에 넘칩니다. 그래서 銓衡을 거치게 되는데 1,2學年の 成績을 참고하고 또한 體力 測定을 합니다. 그래서 엄정한 基準을 가지고 選拔을 합니다. 그래서 2年間の 軍事 敎育을 시키고 任官이 안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名이 訓練을 받고 있고 지금 在學하고 있는 學生들이 34期, 35期인데 33期까지 約 895名의 將校들을 輩出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健全한 國家觀을 가지고 前方 내지는 後方에서 勤務를 하고 除隊하고 현재 社會活動을 잘 하고 있는, 특히 學軍團 出身 將校들일 경우 社會生活에 아주 적응을 잘 하는 그러한 評價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李善宰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內容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財政自立도가 40.2%에 머무는 것이 現實的인 일입니다. 그래서 財政自立도를 높이는 方案에 대해서 상당히 學校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財政自立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學校가 가지고 있는 收益事業이라는 것이 限界가 있기 때문에 곧 登錄金에 의존하는 수밖엔 없는데 登錄金の 決定이 授業料의 경우에는 결국 政府가 합니다.

그래서 昨年 경우에 5%의 授業料 引上밖에 하지 못하는 그

러한 상황이 됐고, 그러나 期成會計는 學校가 自律的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昨年의 경우에는 新入生 경우에 15%를 引上을 했고 在學主 경우에 13%를 引上을 했습니다. 아마 來年度에도 비슷한 水準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높일 수가 없는 것이 物價 사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狀況 때문에 規制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學校로서는 財政擴充方案이 뚜렷하게 妙案이, 우선 自體 收益事業이 없는 形편에서는 없습시다만 他 私立大學에 비해서 國·公立大學은 상당히 登錄金 수준이 현재 거의 절반 밖에 안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學校로서의 생각은 아마도 高等教育이라고 하는 것이 私立大學이나 마찬가지로 國·公立大學에 대해서도 受益者負擔原則에 의해서 登錄金이 上向 調整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 다음에 老朽建物에 대한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老朽建物이라고 한다면 3棟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大學에 오시면, 곧 저희들이 모시고 學校를 둘러보실 機會를 만들겠습니다만 鏡農館, 博物館, 小講堂 이 세 建物이 老朽建物에 해당됩니다.

建築年度가 모두 京城公立農業學校 시절에, 高等學校 시절에 지어진 建物들입니다. 그러니까 1937年度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老朽化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電氣配線 問題라든지 水道問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提起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늘 關心을 가지고 그런 問題들에 대해서 安全診斷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安全한 것으로 判斷을 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施設課가 주축이 되어서 最近에 安全診斷을 全面的

으로 實施를 했습니다. 電氣配線이라든지 水道問題라든지 또는 壁面 같은 곳에 安全度を 調査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安全한 것으로, 그리고 再昨年 경우에 校門옆에 있던 조그마한 2層 建物이 있었는데 診斷 結果, 不實하다고 해서 결국 撤去 許可를 받아서 현재 撤去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安全問題에 대해서는 상당한 關心을 가지고 診斷을 하고 있고 또 補修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實情입니다.

다음으로 鄭韓植 委員님께서 내 주신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報告內容이 눈에 척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機會가 또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한 눈에 들어올수 있도록 잘 準備해서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質問內容이 開放化 時代에 市立大에서 對處할 方案이 뭐냐는 質問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도 상당히 關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對處해 나갈 것인가 하는 研究가 지금 21世紀企劃委員會를 통해서 열심히 研究가 進行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答辯은 敎務處長께서 따로 報告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組織上的 質問을 해 주셨는데 大學發展委員會하고 21世紀企劃委員會의 位相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大學發展委員會는 學則上的 정식 委員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번째 質問과 結付시켜서 같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大學發展委員會 속에 3個의 分科委員會를 두었습니다. 企劃分科委員會, 弘報國際交流分科委員會, 施設分科委員會, 이렇게 3個 分科委員會를 두어서 企劃分科委員會에서는 學校의 基本 編制에 관한, 그러니까 學科를 增設한다든지, 增員을 要

請한다든지, 組織을 바꾼다든지 하는 등등의 問題를 研究하는 分科委員會이고, 弘報國際交流分科委員會는 말 그대로 大學을 弘報하고 國際交流를 管掌하는 그런 委員會가 되겠습니다. 施設分科委員會는 施設에 관한 諸般事項을 審議 論議하는 委員會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學則上의 委員會라고 한다면 大學發展委員會에는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래서 21世紀企劃委員會는 大學發展委員會의 傘下에 特別委員會로서 한시적으로 設置 運營하는 委員會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所要되는 豫算을 물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特別委員會, 學校에 各種 委員會가 많습시다만 그런 委員會에서 所要되는 豫算까지를 一般會計에 要請을 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期成會計에서 充當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豫算이 不足해서 매우 미미한 형편입니다만 敎授들이 또는 職員들이 어떤 豫算에 關連없이 몸으로 때우고 머리로 때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放學 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每週 各 企劃班別로 한두 차례씩의 班別 모임을 가지고 거기에서 論議된 結果를 가지고 金曜日마다, 오늘도 午前 中에 해야 되지만 오늘 이 報告말씀 때문에 午後로 미루었습니다만 每週 金曜日마다 전체 會議를 열어서 또 討議하고 그러한 結果를 가지고 전체 公聽會를 열어서 어떤 基本案을 確定할까 그렇게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만 財政問題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지만 必要한 만큼은 期成會計에서 活用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大學發展을 위한 研究開發費에 대한 質問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期成會計가 아까 80億원 된다고 말씀드렸습시다만 이 80億원의 約 70%가량이 人件費에 充當됩니다. 期成會 職員

들이 51名이 있기 때문에 이 人件費가 상당히 큰 %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學生活動에 상당한, 學生 自體活動입니다. 學生會 活動에 여러 가지 많은 額數가 投與되고 남는 財源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大學發展을 위한 研究開發費라고 할까, 名稱을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일부 活用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재의 財政狀況, 그리고 建物狀況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報告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書面으로 자세하게 표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 드리는 것이 관찮겠다면, 許諾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質問을 해 주셨는데 市政發展을 위해서 어떤 役割을 좀 한 것 같은데 議會와의 關係에 있어서 疏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學校로서도 그런 機會를 가져 보려고 요즘에 와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93年度에는 議會 여러 委員님들과 教授들이 함께 參與해서 세미나를 한 차례 開催를 했고 市民文化振興方案에 대한 세미나를 開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年度에는 定都600年을 맞아서 서울 600年과 市民文化라고 하는 그러한 論題로 심포지엄을 開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앞으로 議會와 서울시立大學과의 연계가 活性化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있을 議員님들 研鑽會가 公務員敎育院에서 있게 되는데 저희 學校 나름대로는 저희 大學에 오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議政擔當官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結果적으로 저희 大學이 施設與件이 열악하



고 덩고 또 의자도 不便하고 등등 여러 가지 充足與件이 되지 않아서 결국 저희 大學에서 하지 못하는 서운한 結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機會가 있다면 委員님들을 모시고 學校에서 세미나를 하는, 그래서 學校 사정도 알아보시고 또 學校 教授들과의 人的交流를 갖는 機會를 擴大해 나갈 計劃으로 있습니다.

특히 文化教育委員會 여러 委員님들과는 學校가 뭘래야 뭘 수 없는 關係인 것으로 判斷하기 때문에 저희 補職教授들 뿐만이 아니고 一般教授들이 아마도 귀찮을 정도로 자주 찾아 뵙고 論議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計劃이 成案되는 대로 專門委員님이라든지 幹事님들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鄭韓植 委員님, 이 정도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林靜技 委員님께서 質問주신 內容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습시다만 劉大運 委員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要請을 하셨는데 學校를 訪問할 機會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訪問을 늘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실 意思가 되어 있는데, 委員님들을 개별적으로도 모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 委員님들을 모시고자 하니까 專門委員님하고 상의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一次的으로는 學校로 못 모시더라도 다음 週初에 이러한 公式 委員會가 아닌 懇談會를 같이 가지시면서 學校 사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더 얘기할 수 있는 機會를 갖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선선해지는 대로 委員님들 時間이 허락하는 한에서 學校가 그런 機會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때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오셔서 學校의 隘路도 들어주시고 學校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건네주시고 하시면 學校發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님께서 質問해 주신 專門大學院運營의 問題點에 대해서는 역시 敎務處長께서 報告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特殊大學院이 公式名稱은 特殊大學院이 아니고 專門大學院입니다. 都市行政大學院, 經營大學院, 産業大學院이 特殊大學院이라고 하는 一般名構으로 그냥 하는데 公式名稱은 專門大學院입니다.

그 다음에 魚潤慶 委員님께서 寄宿舍問題를 말씀하셨습니다.

寄宿舍問題는 아시는 委員님께서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몇 代 前의 市長님께서 約束을 하셔서 가지고 設計費가 下達되어서 設計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建築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은 施設工事費가 策定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學校로서도 일단 設計가 끝난 마당이니까 建築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寄宿舍問題보다도 더 시급한 그러한 空間問題가 지금 山積해 있어서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大學이 市立大學이다 보니까, 물론 登錄金이 싸고 그래서 地方學生들이 매우 많습니다. 과연 市立大學에 地方學生들이 絶對多數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의 問題는 별개로 論議해야 할 問題겠습니다만, 또한 여기에 寄宿舍問題까지..... 다른 敎育空間, 實驗實習空間 같은 것들이 부족한 형편에서 이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우선은, 寄宿舍問題를 解決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學生들의 要求도 거세고, 또 기왕에 設計가 끝난 마당이니까 新築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더 급한 어떤 施設空間에 대해서 確保를 한 후에 年次的으로 寄宿舍問題를 解決할까 그렇게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卒業後 進路에 대해서 質問해 주셨는데 昨年 경우 저희 大學 學生들의 卒業後 就業率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純粹就業率이 83%에 이릅니다. 그래서 工大 같은 경우에는 91.6%에 해당되고, 제일 적은 것이 法大가 70한 7,8% 정도 되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80한 3%됩니다. 純粹就業率이라는 것은 大學院 進學이라든지, 또는 軍入隊를 제외한 그러한 就業率을 말합니다.

그래서 大學院 進學, 軍入隊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學生들이 就業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法大學生들이 특히 적은 理由는 考試準備를 하는 學生들이 많기 때문에 就業率이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學事懲戒에 대해서도 역시 敎務處長께서 報告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林鐘化 委員님께서 質問해 주신 지금 敎育與件이 여러 가지로 劣惡하다고 하는데 醫大를 新設하고 있고, 또 法大 增員을 要請하는 까닭이 뭐냐, 그 增員이 妥當성이 있는냐는 質問이셨던 것으로 압니다.

사실 法大의 增員問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學校가 지금 法學科에 定員이 4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市内 어느 大學을 보더라도 40명 가지고 法學科를 運營하고 있는 大學이 없습니다. 보통 최소 8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명을 要請했는데 市 當局에서 20명으로 定員을 조정해서 내려 주셨고, 다시 敎育部에 承認 要請 中에 있습니다만 人員數가 20명 늘어난다고 해서 더 큰 부담은, 學科로서는 敎授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醫大問題は 87年度에 綜合大가 되면서부터의 宿願事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學校의 意志뿐만 아니라 서울시 當局의 뜻도 함께 포함되어서, 學生들의 意志가 또한 강하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內에 있는 市立病院의 運營狀況이 매우 與件이 좋지 않으니까 서울시立大學에 醫大를 新設해서 市立病院을 附屬病院化하고 그럼으로써 良質의 醫療서비스를 市民들에게 提供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市立大에 醫大를 建設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論議가 된 것입니다.

또 學生들로서는 學生의 여러 가지 位相을 높이는 데서도 매우 醫大가 필요하다고 보아 강한 要求가 있었고,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財政的인 문제가 적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당장에는 그렇게 큰 財政 뒷받침이 없어도 醫大는 運營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附屬病院에, 長期的으로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 中期的으로는 현재 서울시가 運營하고 있는 市立病院을 附屬病院化하면 될 것이고, 또 教授要員도 거기에 醫師들을 教授要員으로 充當할 수 있고, 基礎醫學分野에 한 24名 정도의 教授들만 더 확보를 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附屬病院化가 되면 一般 市立病院의 收益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收益事業으로 해서 教授들의 研究費가 支給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財政負擔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이 決定되기까지는 政治的인 어떤 문제가 介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世界的 名門大學으로의 發展方案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따 敎務處長이 開放化時代를 맞이해서 市立大의 나갈 方向이 뭐냐라고 하는, 問題가 맞물려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報告 中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特性化를 이루지 않아서는 學校가 살아남지 못하는 상당한 危機狀況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百貨店式 羅列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運營하고, 또 學科도 編成하고 해서 學校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危機意識을 다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다고 했고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特性化의 方向이다.

그래서 市立大를 都市問題를 研究하는 어떤 中心大學으로 하겠다. 市立大하면 都市問題가 생각나는, 그래서 모든 都市問題群의 研究力量을 결집을 해서 市立大를 키워나갈 그러한 方案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學校의 存立基盤은 탄탄해지고 發展速度도 加速化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答辯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未盡한 部分들은 추후에 書面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敎務處長 姜哲圭; 敎務處長 姜哲圭 敎授입니다.

學事に 관한 事項 몇 가지만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선 魚潤慶 委員님께서 學事懲戒에 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저희 學校 學事懲戒 規定은 그 學期 學點이 1.0 이하, 總 완전 滿點을 맞으면 4.5가 되겠습니다만 1.0 이하를 맞게 되면

除籍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5 이하를 세 번 맞으면 또 역시 除籍이 됩니다. 이러한 基準에 비추어서 지난 해 94年度 除籍이 48名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75 이하를 맞으면 일단 警告를 내보내는데 이런 警告를 맞은 學生이 94년에 251名 이 있었습니다. 今年 1學期 中에 계산을 해 보니까 除籍對象者가 1명으로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警告對象者가 47名이 나왔습니다. 기타 더 필요하신 資料가 있으면 추후에 文書로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劉大運 委員님께서 特殊大學院 運營에 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저희 學校에는 特殊大學院에 해당되는 大學院이 3個가 있습니다. 都市行政大學院이 있고, 經營大學院이 있고, 産業大學院이 있습니다. 이 세 大學院에서 課程이 碩士課程이 있습니다. 그리고 特殊課程으로서 都市行政大學院에 設置되어 있는 高位 都市政策課程이라는 課程이 하나 있고, 經營大學院에 最高經營者課程이라는 特殊課程이 있습니다.

이 碩士課程에 대해서는 저희 學校 豫算이 配定이 돼 가지고 一般會計에서 學校豫算으로 그대로 運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特殊課程, 高位 都市政策課程과 最高經營者課程에 대해서는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自給自足體制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受講을 한 學生들이 낸 學費를 가지고 그 學期, 그 學期 運營해 나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저희 一般會計로 들어오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學生들이 내는 돈 중에서 授業料에 해당하는 部分은 學校 市金庫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自給自足運營體制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立 大學校의 特殊課程에 오시는 분들이 내는 學費가 다른 많은 大學들, 私立大學이나 國立大學 포함해서 마찬가지로입니다만

내는 學費에 비해서 대단히 참 싸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냐 하면 今年 學期를 보면 150萬원 정도입니다. 아마 다른 課程에 履修를 하신 委員님들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큰 大學에서는 한 400萬원씩도 하고 그 이상도 합니다만 저희 學校는 그야말로 實費로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學校에서 지금 크게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市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自給自足으로 運營되는 體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鄭韓植 委員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質問을 하셨습니다.

教育開放과 관련해서 外國大學이 이제 大學上陸할 이런 時代に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만 市立大는 도대체 이러한 時代に 어떠한 對應方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企劃研究室長이 報告를 계속 했습니다만 저희 大學으로서는 지금 이 規模나 歷史나 여러가지로 봐서 모든 部分에서 世界一流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學校의 特性化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總長님께서 지난 5月 1日자로 赴任을 하셨습니다만 總長님께서 就任辭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역시 오늘날 世界는 21世紀로 가면 갈수록 都市化, 都市文明의 時代가 아니냐, 그런데 都市文明이 큰 危機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또 서울市의 마침 市立大學이기 때문에 都市問題를 좀 집중적으로 研究하고 問題를 解決하고 하는 이런 方向으로 學校를 特性化해 나가는 것이 옳은 方向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 教授들도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고, 市에서도 대체로 옳은 方向으로 認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目標는 지금 이 都市問題에 관한 한 世界的인

都市 中心大學으로 만들어가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目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21世紀委員會에서 지금 每週 檢討를 하고 있는데 學校 內의 組織改編을 위해서는 지금 都市問題를 아주 專門으로 研究하는 都市問題研究所를 學校 內에 한번 設置를 해 볼까, 아니면 아주 都市大學이라는 單科大學을 學校 內에 만들어 볼까, 아니면 아주 專門大學院으로, 特殊大學院으로 都市專門大學院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이런 여러가지 案을 놓고, 지금 아주 여름입니다만 심각하게 저희 內部에서 討論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案이 決定이 되면 다시 委員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要請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研究가 進行되고 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이 都市問題에 관한 한 國際심포지엄이나 國際會議 이런 것들을 市立大學學校가 每年 定期的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都市問題를 풀려면 이 서울에 한번 와 봐야 되고, 서울市立大學學校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學校 內에는 소위 都市問題를 研究하는 그런 큰 컨퍼런스를 해서 베세토관이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東京이 都市 아닙니까? 동북아 都市를 연결하는 都市問題 研究의 중심센터를 우리 學校에 두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전부 研究하고 國際심포지엄도 하고 모든 것을 해 보자 하는 이런 趣旨로 저희가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이제 결국 어느 分野든지 世界的인 大學이 되려면 세가지 問題가 解決이 돼야 됩니다. 영어로는 쓰리에 프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꽤컬티(faculty)해서 教



授가 있어야 되고, 펀드(fund) 基金이 있어야 되고, 퍼실리티 (facility) 施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報告에서 委員들께서 보셨겠지만 아주 劣惡한 水準입니다. 저희 教授數만 보더라도 入學定員 1,600名에 教授가 지금 160名 아납니까? 하버드大學이 사실은 1,600名 정도 募集을 합니다. 그런데 教授는 800名에서 1,000名이 되고 있습니다. 世界 一流大學들은 보통 2,000名입니다. 서울大學은 지금 教授數가 1,500名 가까이 됩니다. 國內에도 忠南大學, 東國大 하는 大學들이 모두 800名, 그저 700名 이런 수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160名 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都市問題든 무슨 問題든 하여튼 世界的인 大學으로 키우기는 굉장히 힘겨운 그런 狀況에 있기 때문에 우선 總長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教授數를 來年에 90名이라도 좀 充員을 꼭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펀드 基金은 우리가 계속 文化財團을 한 다든지 해서 市의 支援도 받고 民間의 支援도 받고 해서 基金을 키워나가고요. 施設은 계속 計劃대로 推進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탬 수 있는 것은 情報化, 情報化가 돼야 國際交流도 되고 國際的인 競爭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都市情報시스템을 研究하는 그런 센터를 우리學校에 지금 設置해서, 이번에 要請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情報化에 관한한 큰 大學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開放化와 관련해서 慶南地域에 있는 울산대학이 이런 措置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外國語學科인데요, 英語學科 또 中國語學科에 들어온 全 學生을 4年 中에 한學期를 美國에 있는 大學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美國의 某 大學에 가

서 한 學期를 受講을 해 오고 그 學點을 그대로 認定해서 卒業에 認定해 주는 것이고, 또 中國 같으면 昨年에 남경대학에 쏠 클래스를 다 보냈다고 합니다, 60名 클래스인데 57名이 갔다고 그러니까. 學生 負擔도 있고 學校 負擔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國際 交流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 한동대 같으면 外國人 語學教授를 10餘 名 採用해서 外國語로 講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問題는 저희도 덩달아서 앞으로 檢討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世界的인 都市問題를 解決하는 都市研究 中心大學으로 만들자. 그러면 서울市가 안고 있는 各種 都市問題도 저희 大學에서 診斷도 하고, 解決方案도 提示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可能하지 않겠느냐. 서울市 問題를 푼다면 아마 全世界 都市問題로 고민하는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틀림없이 어떻게 풀었는지 關心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市立大學校에 와서 봐야되고 하는 이런 過程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對處方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補充質疑하실 분 있으면 補充質疑하십시오.

劉大運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劉大運 委員; 제가 質疑하는 부분은 書面으로 반드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答辯하신 분한테 質疑하는 것입니다.

지금 大學의 特殊大學院 問題點을 指摘한 부분은 바로 一般會計가 아니고 特別會計도 아니기 때문에 大學의 自律性에서 나오는 問題이기 때문에 收入과 支出에 대해서 精確한 財政

호름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問題를 던져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收入과 支出 明細書를 提出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李英順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英順 委員; 李英順입니다.

市政發展에 기여한 內容과 成果를 書面으로 받고 싶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趙相勳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趙相勳 委員; 간단하게 補充質疑하겠습니다.

企劃研究室長께서 直答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國·公立大라고 할 때 廣域自治團體에서 設立 또는 運營하는 大學을 아마 公立大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公立大學이 현재 몇 個 정도나 되죠?

○企劃研究室長 金尙培; 두 개입니다.

○趙相勳 委員; 어디와 어디입니까?

○企劃研究室長 金尙培; 서울시立大學校가 유일하다가, 종전에 國·公立大學이라고 할 때 公字를 저희 大學校에다 붙였었습니다. 2年前에 仁川大學이 仁川市에 寄附採納되면서 市立仁川學校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公立大學이 두 개로 되었습니다.

○趙勳尙 委員; 아까 말씀하실 때 國立大學에 優先順位가 가기 때문에 서울시立大學은 밀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서울시立大가 아니라 서울大가 되고 서울公立大로 하든가 名稱이 바뀐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教育部로부터의 財政 支援 補助金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企劃研究會長 金尙培;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市立大學校에 온 지가 14年째 됩니다만 昨年에 처음으로 1億 2,000餘 萬

원의 補助費를 받았는데 주로 圖書購入費에 充當을 해서 썼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렇다면 教育部에서 學事行政, 敎務行政에 대한 一般指針이나 또는 監視 監督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敎授 充員과 같은 財政이 필요한 問題에 대해서 간섭할 權利가 있습니까?

○企劃研究室長 金尙培; 바로 그 問題입니다. 그래서 教育部가 敎授 充員 權限을 가지고 있는 權限이 敎育公務員인 경우에는 國家公務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身分이. 그래서 國家公務員의 定員權을 總務處가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財經院하고 豫算關係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問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大學은 地方財政으로 運營되는 學校이기 때문에 그럴 必要가 없다는 說明을 누누이 했고 상당히 說明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昨年부터 노력을 더욱 기울여서 今年에는 우여곡절 끝에 市로 敎授 定員 調整權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行政刷新委員會에서 모든 學事 問題를 포함해서 市立大學에 관한 사항들을 서울市에 移管하라는 指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指針에 따라서 移管을 推進 中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教育部 나름대로의 問題가 있는 것 같습니다, 敎育法을 고쳐야 한다든지 關係法令을 고쳐야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方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教育部에서는 열심히 推進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學事問題가 서울市로 移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趙相勳 委員; 그러면 서울市當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서울市로부터 監査도 받으실 테니까, 當局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部署를 말하는 것입니까?

○企劃研究會長 金尙培; 저희 大學을 主管하고 있는 部署는 企劃管理室 傘下에 市政開發擔當官이 있습니다. 여기가 직통 라인이고 또한 政策企劃官이 있습니다.

○趙相勳 委員; 네, 알겠습니다.

○企劃研究室長 金尙培; 가능하시다면 서울學研究所에 대해서 잠깐 質問에 대한 答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네,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서울學研究所長 安斗淳; 서울學研究所長 經濟學科 教授 安斗淳입니다.

우선 林靜技 委員님께서 서울學 국제세미나에 관해서 質疑를 하셨고 鄭韓植委員님께서 市議會 發展을 위해서 서울市立 大學校가 한 것이 무엇이나, 앞으로의 向後 計劃 같은 것을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서울學 국제심포지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熟知하시는 대로 저희 서울學研究所가 發足한 것이 2年前입니다. 2年 동안에 저희들이 국제심포지엄을 3個를 했습니다. 모두가 서울의 都市問題, 서울의 歷史와 文化問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우선 94年度에 한 것이 都市와 歷史 그래가지고 美國, 獨逸, 佛蘭서, 이태리, 그리고 中國, 日本 이런 데 學者분들이 오셔서 급속하게 現代化되어가는 都市社會에서 古典的인 傳統文化 繼承方案, 그리고 市民生活의 潤澤化方案 이런 것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물론 그에 관한 記錄은 프로시딩으로 나와 있고 또 研究報告書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이미 質疑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된 資料는 틀림없이 送付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韓·中 文化交流와 서울學 關聯資料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事業을 합시다만 海外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관한 資料들인데 우리 國內에 없거나 그 동안에 유실되었던 資料들이 海外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所在를 파악을 못했고 또 실제 전혀 活用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 研究所에서 世界 各國의 記錄保存所라든지, 博物館, 圖書館하고 協助 體制를 구축해서 그 동안에 6,800餘 種에 달하는, 稀貴資料입니다. 전부 하나하나가 처음 發見되는 대부분의 資料들을 지금 確保해서 저희들이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또 하나하나 解題를 달아서 有關機關, 그리고 學界의 研究를 위해서 지금 提供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韓·中 文化交流와 서울學資料에 관한 것은 바로 이런 協助體制의 結果 나온 中國의 學者들하고 저희 韓國의 學者들이 韓·中文化交流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過去에 어떻게 했고, 또 특히 中國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관한 資料들을 앞으로 어떻게 體系的으로 發掘하고 活用할 것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論議를 했고 이 역시 이미 報告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月 29日로 잠정적으로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만 11月 29日이 아시다시피 서울 定都記念日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잡아서 저희들이 지금 假題로 今年度 국제심포지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住民 參與의 歷史와 市民 삶의 質"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總長님께도 見解를 여쭙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地自制 時代に 분명히 市議員들이 지대한 關心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市議員들이 적극적으로 參與해서 發表도 해 주시고 討論도 해 주시는 것

이 좋지 않겠으나, 그래서 이 問題는 委員長님들 또 幹事님들, 특히 또 이 市議會 事務局하고 協助體制를 구축해서 이것을 實現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企劃研究室長이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희의 意志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委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支援과 呼應이 간절합니다.

그 외에 可能하면 參與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李載震 委員님이나 孫馥 委員님은 계속해서 여기 委員會에 속해 있으시면서 저희 學校가 하는 일을 꾸준히 지켜 봐 주셨습시다만 저희들은 機會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바쁘신 사정 때문에 呼應을 제대로 못해 주신 점이 저희로서는 아쉽습니다. 그 점을 勘案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機會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事前에 알려드리겠고 그때마다 參與가 可能하시면 呼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市議會 發展을 위한 寄與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企劃研究室長님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희들은 公式的으로 市議員님들을 모시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만 可能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學術行事가 있습니다. 發表會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今年 下半期만 해도 저희들이 學校에서 사실은 市民을 위해서 또 市政을 위해서 하는 學術行事가 아직 네댓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事前에 알려드릴 것이고 機會가 있는 대로 參與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具體的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教務處長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시다만 저희 서울學研究所에서 지금 可能하면 每年 持續的으로, 그리고 서울市立大學의 하나 트레이드마

크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 東洋 3國의 大都市問題 研究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동경, 북경 이 세 都市는 400年 내지 600年 이상된 首都로서의 古都, 그리고 文化의 中心地였고 世界 어느 都市하고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文化 歷史 遺産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定期的으로 大都市問題이면서 역시 首都가 가지고 있는, 一國의 首都가 가지고 있는 問題點, 그리고 發展方向, 비전에 관해서 심포지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市 議政活動하고 직접 機會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의 市의 發展方向은 저희들이 學校의 方向으로도 설정을 해 놓은 것이 市民과 함께 하는 市民을 위한 大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關心과 呼應을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學研究所가 원래 만들어지기는 600年紀念事業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600年 事業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600年 事業은 대부분 一過性 行事였고 서울學研究所가 만들어진 것은 이 一過性 行事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定都 600年の 精神을 繼承해서 700年, 800年, 1000年까지 가자는, 그래서 一過性 行事를 補完하는 事業으로 만들어진 것이 서울學研究所인데 요즘 서울시나 모든 分野에서 豫算이 어려워지고 사정이 惡化되니까 600年 事業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것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關係官들에게도 누차 얘기를 해서 서울시가 결국은 市民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뿌리를 찾고, 서울시가 市民들에게 故鄉意識을 提高시켜주는 그런 事業은 投資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좋은 일이지 결코 그것은 豫算浪費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점에 대해서 委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더 이상 補充質疑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니까 市立大學校 業務報告의 件은 이것으로 終結하겠습니다.

市立大學校 公務員 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가 있기 때문에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2時 31分 會議中止)

(14時 26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順德; 座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 2. 서울特別市教育廳業務報告의件

(14時 27分)

○委員長 安順德;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 教育廳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敎育監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成耆璇;네.

○委員長 安順德;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企劃管理室長 成耆璇입니다.

오늘 敎育監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人事를 드려야 道理인 줄 압니다만 공교롭게도 10時부터 敎育部에서 市·道 敎育監 會議가 있었고, 또 이어서 總理公館에서 總理主催 午餐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신 다음에 바로 敎育監 協議會에 들어가셨는데 그 協議會가 끝나시는 대로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委員님 여러분께 人事를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副敎育監님께서는 오늘 수안보에서 國立敎育評價院에서 主催하는 市·道 副敎育監 會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參席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報告를 드리기 전에 저희 幹部職員을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初等敎育局長 池容根, 中等敎育局長 權榮燦, 社會敎育體育局長 尹榮烈, 管理局長 鄭亨鎭)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기준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特別市 敎育廳의 95年度 主要業務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지난 7月 13日 第4代 서울市議會 開院에 즈음해서 本會議 및 文化敎育委員會에서 서울의 敎育現況과 主要業務를 상세히 報告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主要業務 中 力點業務를 중심으로 推進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교육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

○委員長 安順德; 報告하시는 도중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人性教育의 強化 이려면 道德·倫理教育의 충실, 그 다음에 敬老孝親思想 이렇게 큰 대목만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을 다 說明하시다 보면 時間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큰 대목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서 읽으면서 자세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質問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亨根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강 業務報告를 한 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題目만 하시고 생략하시고, 지금 현재 進行되고 있는 業務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報告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한 번.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네, 한 번 했던 것입니다. 이 教育內容이 그냥 계속 進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物量으로 표시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計量化할 수 있는 事業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또 너무 內容이 빈약한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時間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繼續)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教育廳 業務報告에 대하여 먼저 質疑하실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委員님, 말씀하세요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本委員은 他委員會 所屬으로 있다 文化教育委員會에 온 지가 이틀밖에 안 돼서 많은 業務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特殊學校 豫算支援에 관해서, 두 번째는 給食施設 不條理 剔抉에 대한 代案에 대해서, 세 번째는 給食에 필요한 副食 納品業者들의 談合 및 不條理에 대해서, 네 번째는 新築建物에 대한 監督不在 現實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實業系 高等學校 給食施設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晝化여고 移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學校運動場을 駐車場으로 開放하는 駐車難 解消方案에 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먼저 特殊學校 豫算支援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지금 行政區域은 江北區에 位置해 있습니다만 이 學校는 聽覺障礙者들이 서울市內 각 곳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 學校인데 學校名稱은 애화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部分의 豫算支援은 教育區廳所管이 아니라 本廳所管으로서 이 學校가 지금 거의 다 쓰러져 가지고 상당히 붕괴위험이 매우 높은 學校입니다. 總 所要額은 16億원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要求額은 約 8億원 정도를 支援을 要請하고 있으며, 主體는 天主教에서 運營하는 學校입니다. 여기

에 대한 豫算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支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給食施設 不條理 剔抉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되겠는데 지금 企劃管理室長께서 不條理에 대한 問題點이 있었던 것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과로 끝날 問題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業務報告 中에 道德·倫理教育의 充實이다 이것을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하셨습니다만 學生은 教師가 指導를 하고 있습니다. 그 學生을 指導하는 教師를 監督을 하는 사람이 바로 校長先生님이지요. 이 校長先生님들이 돌이킬 수 없는 不條理의 源泉에 汚染이 되어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영구 보존될 速記錄에 90%이상의 給食施設을 한 校長先生님들이 이런 部分에 대해서 不條理에 연루돼 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몇 분의 校長先生님이 北部支廳 特搜部에 의해서 調査를 받았습시다만 이 部分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本委員이 판단하건대, 왜 不條理가 생기느냐. 昨年으로 기억을 합시다만 원래 學校에 寄附金을 내지도 받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國會 教育委에서 法을 改正해서 給食施設에 대한 學父兄들의 寄附金을 받도록 이렇게 措置를 했습니다. 물론 教育廳의 要求에 의해서, 學父兄들의 要求에 의해서 이 法이 改正이 됐습니다.

給食施設을 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貧富의 隔差를 勘案을 해서, 예를 들어서 狎鷗亭洞에 구정국민학교가 있다 하면 總給食施設에 필요한 豫算이 1億 5,000萬원으로 가정했을 때 教育廳의 豫算은 극히 적게 配當을 합니다. 왜냐 하면 學父兄들이 그 부근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冠岳區의 貧民村에 있는 學校에 대해서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豫算을 支援하고 있는데 問題는 여기서 問題가 發生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市 教育廳이 監督不在와 管理不在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위 校長先生님들에게 不條理를 할 수밖에 없는 根本的인 原因提供 行爲를 서울市 教育廳이 하고 있다, 단호히 本委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給食施設은 財政會計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中小企業法에 의해서 中小企業을 育成한다는 그런 次元에서 協同組合이 구성됐습니다, 餘他 組合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給食에서 말이지요. 韓國商業用調理機械工業協同組合이라는 것이 中小企業協同組合 傘下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組合 名義만 빌려 가지고, 원래 이 法을 制定하게 된 根本趣旨는 零細企業의 專門性 있는 製品을 이 法을 適用해서 사 주어서 施設을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 傘下의 組合社들은 말이지요, 못 만드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一括契約을 校長先生님 主導下에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아니, 學校 運營委員會에서 協議해서 합니다 이렇게 答辯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全權이 말이지요, 運營委員會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두 가지의 問題를 여기서 提起할 테니까 충분한 代案을 答辯하셔야 될 것입니다.

廚房施設하면 平均 6,800萬원에서 8,000萬원 사이가 들어갑니다. 또 剩餘教室이 없는 國民學校에서는 廚房施設의 教室을 하기 위해서는 約 1億원에서 1億 2,000萬원이 들어가는데 이

廚房施設에 所要되는 額數의 보통 10%에서 지나친 사람들은 15%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剩餘教室이 없는 廚房教室을 짓기 위해서 1億원 내지 1億 2,000萬원이 所要되는데 여기에 대한 建築의 監査이 전혀, 심지어는 設計圖面 하나 教育區廳에서 챙겨주지 않는 관심밖의 일로서 이것이 큰 問題다, 이 不賣工事로 인한 엄청난 問題點이 반드시 머지 않은 將來에 다가올 수 있는 危險한 要素를 放置해 놓고 있다. 여기에 대한 代案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給食에 필요한 副食納品業體가, 本委員이 정확한 數値는 아닙니다만 研究를 해본 結果에 의해서는 國民學校가 보통 1,500名에서 많은 學校는 2,000名 가까이 있습니다만 1,500名을 基準해서도 約 한 달에 2,000萬원 정도가 所要되는데 여기에 대한 不條理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不條理에 대한 防止策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한 다음에 必要하다면 補充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實業系 高等學校 給食施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4個 學校인가요, 商業高 하나하고 實業高 3個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政策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業務報告에 나와 있습니다.

京畿商高等 몇 個 있지 않습니까? 京畿商高하고 서울 무슨 工高조, 서울工高? 아무튼 4個가 있어요.

그런데 이 學校는 政策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特殊性을 勘案해서 원래 實業系 高等學校, 先進國을 봐도 高等學校 이상은 給食施設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 學校는 産業役軍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이 政策에 反映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많은 施設費도, 여기 共同實

習所 運營 말이죠, 共同實習所 運營에 工業系에서 京畿機械工高, 서울工高 이렇게 있고 商業系에서 德壽商高가 하나 있어서 3個 學校인데 이 學校에 말이죠, 産業役軍으로 키우겠다 면 배가 불러야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實習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給食施設로 기껏 投資해 봐야 剩餘教室이 이 學校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剩餘教室이 없다고 前提했을 때 4億 5,000萬원만 投資하면 이 분들이 훌륭한 이 나라의 産業役軍으로서 자라는 데 그리고 이바지하는 데 아 잡지 않겠다 이렇게 本委員은 判斷하는데 여기에 대한 用意가 있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요.

惠化女高가 이미 移轉이 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把握하고 있습니다만 移轉된다면 어느 場所에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各 地域에 가보면 國民學校나 中學校 運動場이 그냥 비어있는데 地域 골목골목마다 駐車가 엄청나게 되어서 불이 나면 엄청난 被害가 일어날 것 같은 現實에 直面해 있습니다. 그런데 學校運動場을 夜間駐車場으로 開放을 하면 駐車難은 일단 解消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教育廳에서의 管理問題에 問題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밤에 났다가 그 다음날 學生들이 登校하기 전까지 차를 안 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큰 問題지요. 이 問題는 말이죠, 管理問題를 補完한 후에 補完을 충분히 研究 檢討하면 반드시 여기에서 問題點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確信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學校運動場이 夜間駐車場으로 許容될 경우에 엄청난 住民들의 便宜提供은 물론 골목길 無斷駐車로 인한 火災 당시의 큰 人命被害 및 財産被害도 상당



히 줄일 수 있다 그렇게 判斷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많은 質疑를 해서 答辯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順德 委員長, 鄭韓植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른 委員님 質疑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간결하게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靜技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靜技 委員; 林靜技 委員 입니다.

7페이지에 少年少女 家長 學生 指導의 問題點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少年少女 家長 學生이나 缺損家庭의 子女 등이 懲戒로 犧牲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體育服이나 學習準備物 未備로 體罰을 받고 세 번 이상의 懲戒를 받으면 學校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懲戒된 學生들의 家庭環境調查書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들은 얘기인데요, 地方學生인 경우 父親이 서울로 職場을 옮길 경우 그 子女가 待機하고 있는 상태에서 犧牲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少年少女 家長 學生이나 缺損家庭의 子女가 이런 準備物 未備로 인해서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學校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그 機會에 待機하고 있던 學生은 바로 入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調査해 주셨으면 하구요.

또 20페이지에 人文系 未進學 女學生들한테 就業教育의 計劃이 있는지, 女性人力 擴大를 위한 어떤 計劃이 있는지 答辯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託兒施設에 대해서, 특히 달동네에는 夫婦就業으로 인해서 兒童을 放置해 두는 경우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犠牲되는 경우가 많은데 託兒問題에 대해서 解決 내지 協調 計劃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梁東鎬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梁東鎬 委員; 梁東鎬 委員입니다.

給食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懇談會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學父母들의 負擔이 큰데 큰 곳은 변두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道峰區나 城北區, 江北區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學父母들에게 調査를 해 보니까 學父母들이 給食問題는 解決을 해 달라고 해놓고 學父母들 負擔이 많으니까 전부 다 포기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今年度에는 이미 틀렸고 96年度에 豫算을 세워서 될 수 있는 한 學父母 負擔이 없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변두리는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道峰區에 高等學校가 몇 個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道峰區에 高等學校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高等學校를 新設할 수 있는 計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 質疑하실 委員, 魚潤慶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魚潤慶 委員; 江東出身 魚潤慶 委員입니다.

地域이나 學群에 따라서 學校가 어느 곳에는 비교적 몰려있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이 學校가 모자라

서 시간을 쪼개쓰는 학생들이 보통 학교를 등·下校하는데 몇 시간씩 아주 복잡한 버스에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江東區의 경우 女高가 무척 모자라서 女學生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쪽에 상당히 부족한 教室이라든지 女高의 新設 計劃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特殊學校 設立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內에서는 아마 特殊學校 하면 먼저 좋지 않은 先入觀을 가지고 자기 동네나 근처에 오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서 郊外로 나가거나 서울 特別市가 아닌 地域에 어느 敷地를 選擇해서 하고자 할 적에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개 서울을 떠나서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그린벨트나 公園敷理로 設定돼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可能하고 또 어떤 경우에 不可能한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화로운 人間教育이라는 아주 좋은 타이틀 밑에 여러 가지 쪽으로 分流가 돼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民族文化 繼承發展 教育이라는 이 파트도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適의 概念으로가 아니라 克日의 概念으로 日本을 파악하고 日本이라는 나라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學生들에게 그래도 머리 속에 심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 放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침 프로였던 것 같은데 담배 吸煙學生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속에 中學校 1學年, 2學年 女學生들의 경우 吸煙率이 굉장히 많다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 더 큰 충격은 어린 學生들이 피우는 담배가 日製 담배 마일드세븐이라고

하는 거래요.

담배인삼공사 統計를 보니까 처음에는 0.몇% 됐던 外國產 담배가 지금 얼마입니까, 아직 10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今年度에 約 11%, 전체 담배 販賣額의 約 11%를 차지하고 11%속에 約 51%가 日本 담배라고 그러합니다. 日本 담배 태우는 층이 거의 靑少年들이고 이것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놔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담배는 아마 4·50%線으로 떨어지고 그 대신 日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담배 팔아 큰 收支 맞는 그런 結果까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대단히 큼니다.

靑少年, 學生들에 대한 人性教育에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比重을 가지고 잘 指導해 주실 것으로 알지만 특히 그 부분에 어떤 關心과 計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흘리는 말로 했습니다만 克日이라는 것, 꼭 相對的인 概念으로 우리는 民族的 自矜心을 키우는 어떤 民族精氣, 精氣라는 것이 특히 學生들 教育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하지 않느냐, 보통 어떤 知識教育만 注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아주 대단히 잘 하는 아이들이 됐는데 어떤 主體意識이라든지 民族意識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점점 날이 갈수록 희박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이 部署에서는 아주 각별한 關心과 愛情을 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傾注해 주셨으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部分에 대한 어떤 計劃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鄭韓植 幹事, 安順德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安順德; 徐在浣 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同僚委員께서 많은 質問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給食問題가 나옵니다만 지난번 議會때도 給食問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資料가 아주 미흡했고 해서 이번에는 給食施設 不正 再發防止에 대한 對策을 구체적으로 書面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行政簡素化에 따라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業務報告를 줄이고 있는데 一線學校의 敎職員 및 모든 一線에서는 많은 業務가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래서 各種 報告書, 統計, 이런 報告事項들이 중복되어 있지 않는가? 敎育委員會와 敎育廳과의 이런 양분되어서, 같이 報告를 해야 되고 한 가지 公文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上半期에 이런 行政簡素化를 위해서 敎育廳에서는 몇 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實施를 했으며, 또 앞으로의 그런 行政簡素化에 따른 對策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許光泰 委員님, 말씀하세요.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主張을 많이 해 주셨는데 可能하면 重複되지 않는 범위에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學生 修鍊活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學生 修鍊活動이 요즈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車輛을 많이 동원해서 學生들의 大移動 현상을 빚기 때문에 危險성과 安全에 대한 여러 가지 問題點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修鍊活動 속에서 일어난 事件, 事故가 파악된 게 있으면 그 與否를 報告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學生들의 指導問題입니다.

현재 藥物이 誤·濫用되고 있는, 豫防教育을 보았습시다만 이것 가지고 과연 豫防이 될수 있는가. 저는 指導監督 次元에서 一線教師들이 일일이 地域을 돌면서 學生을 善導할 用意는 없는지, 그리고 校內에서 불량서클이 파악된 게 있으면 이번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學院 對外開放에 대한 推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外國에서 지금 學院開放을 要求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本廳에서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혀 準備없는 狀況 속에서 外國人 投資가 承認됐을 경우에 零細性を 가지고 있는 모든 學院들에 대한 對策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外國人 投資 承認 認可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할 用意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贊助金品管理制度, 현재 實施하고 있는 贊助金品 制度가 약간 빗겨간 현상밖에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學父兄들이 그 동안에 學校에 냈던 寄附金을 一線教育廳이나 그밖에 市 教育廳의 要請에 의해서 寄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빗겨가는 현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制度改善의 用意가 없는지,

制度의 改善이 있다면 어떠한 方法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學校 教師들이 課外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즉집게 課外指導 教師라고 해 가지고 新聞이나 그밖에 많은 部分의 輿論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만 요즈음에 잠잠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일부 제가 아는 事項에서는 課外指導를 지금도 하고 있는 教師들이 대다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 告發된 것이나 摘發된 事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向後對策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補充的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했습니다만 學校運動場 駐車化問題, 이 部分에 우선 중점을 두어서 解消할 수 있는 方案을 學校 內에서 講究해 주시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學校運動場을 地下를 파서 駐車難을 解消할 수 있는 方法을 研究해 보는 代案을 提示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給食에 관한 問題입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어서 이번에 物議를 빚었던, 많은 教育公務員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또 全國民에게 실망을 주었던 物議의 人士들에 대한 公開를 할 用意는 없는지? 公開를 해서 速記錄에 남겨서 우리가 이런 일은 再發되지 않도록 防止하는 次元도 되고, 또 앞으로 教育公務員이 自矜心を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公開를 要求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善宰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善宰 委員; 李善宰 委員입니다.

資料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社會教育施設 해서 마흔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社會教育施設의 運營 形편이 요즈음 어떤지, 거기에 收容되어서 教育받는 對象者數가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教育·文化센터 役割 遂行에서 主婦教室 運營 25萬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教育機關에서 教育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28페이지, 職業靑少年을 위한 教育實施 그러는데 거기에 放送通信高等學校 7校, 産業體 附設學校가 2校, 産業體 特別學級 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앞에 말씀드린 社會教育施設 中에 學校形態의 社會教育施設이 아마 한 열 몇 個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勤勞靑少年을 위해서 教育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記錄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教育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學金 支給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中·高等學校 學生들에게 주는 ·學金의 支給하는 額數가 얼마나 되는지, 또 受惠받는 學生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不遇靑少年을 教育하고 있는 學校形態의 社會教育施設 學生에게는 얼마만큼의 獎學金이 支給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鄭韓植 委員, 말씀하세요.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먼저 特殊學校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特殊學校가 學校數로서는 18個 學校로서 一般學校 合計 1,138個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總 歲出規模에 있어서는 2兆 1,130億원 中에서 特殊學校에 支援되는 豫算은 181億원으로써 1%도 채 안 되는 0.9%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向後 特殊學校 運營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計劃을 書面 또는 一括 答辯해 주시고, 障碍者의 就學率이 총 몇 名에 몇 %인가? 다음에 豫算支援을 向後 어떻게 提高할 것인가 이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中學校 總 卒業者數가 몇 名입니까? 또 그 中에서 高等學校 進學率이 몇 %정도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進學하지 못한 學生들의 進學機會를 넓힐 方案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實業系 高校 學校數가 一般系 高校學校數에 對比해서 32 對 68입니다.

반면에 學生數는 實業系 高等學校 對 一般系 高校學生數는 40 對 60으로 實業系 高校가 一般系 高校에 비해 과밀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理由 등으로 一般系 高校는 學力平準化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教育廳 關係公務員들께서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一般系 高校와 實業系 高校間의 學力差異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一般系 高校와 實業系 高校間의 學力差 水準을 어떤 方法으로 解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計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學校에 가면 學父母들과 관련된 수 개의 團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團體가 있으며, 그 數는 學校마다

몇 個씩 되는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各各機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 團體에서 學父母에게 會費 등을 徵收하는가, 한다면 이 會費는 어디에 쓰이는가? 다음에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이들 團體가 結成趣旨에 맞게 運營되는가를 調査하여 본 바가 있는가, 있다면 結成趣旨에 충실하게 運營되고 있는가?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質疑하는 內容은 있는가 없는가,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學校周邊 有害施設 相對禁止區域의 新規許可에 대한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構成員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으며, 委員 選任 基準은 무엇인가, 또 全面 交替意向은 없는가? 다음에 이들의 活動을 管轄 統制할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學校周邊 有害施設은 相對禁止區域에 有害施設 新規許可에 대한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構成員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가, 委員 選任 基準은 무엇인가, 이들을 전면 交替할 用意는 없는가, 이들의 活動을 管轄 統制할수 있는 制度的 裝置는 있는가, 다음에 新規 設置 審議에 不正은 없다고 보는가, 있다면 防止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는 무엇인가, 整理 다 되셨으면 다음 質疑를 계속 하겠습니다.

宅地開發時에 2,500世帶 이상일 경우에는 都市計劃施設 基準에 의거, 學校用地를 確保해야 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住宅再開發時에는 2,500世帶 이상일 경우에도 學校用地 確保를 위한 法的 根據를 부여해야 된다고 報告를 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2,500世帶뿐만이 아니고 그 이하의 世帶數라 할지라도 이것을 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教育監과 사전 協의한

다는 것은 教育監의 便宜에 따라서 市民들의 住居環境改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法으로 정해야지 教育監의 便宜에 따라 解釋할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方針과 見解를 撤回할 用意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委員들께서 給食施設 不正과 관련해서 質疑를 했습니다. 저는 이와 相關한 한 가지 質疑만 하겠습니다.

管理 監督 소홀로 인해서 地域教育廳 또는 本廳 公務員들 중에서 懲戒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懲戒를 받지 않을 정도로 管理 監督을 철저히 했다고 보는가에 아니면 아니므로 答辯을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答辯이 곤란하시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趙相勳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趙相勳 委員; 廣津區의 民主黨 趙相勳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資料 要請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教育廳 業務와 相關해서 關聯法規, 條例, 規程, 準則, 告示 이것들을 묶어놓은 規程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教育廳 業務가 굉장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경우는 배우는 立場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規程集이 있다면 規程集을 하나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는 94年, 95年 歲入·歲出 豫算 決算과 相關된 資料를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市 教育廳의 自體監查 內譯이 있다면 그것도 要約된 것이라 할지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統計를 要請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

금 教育部 豫算을 보니까 歲出豫算에서 人件費가 거의 64%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先進國, 그러니까 外國 教育財政의 어떤 歲出比率과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나 되는 엄청난 額數가 人件費로 흡수가 된다면 과연 教育財政이 절대적으로 不足하기 때문에 그런지 정확한 判斷이 잘 안 서거든요. 실제 施設費나 事業支援費나 運營과 또 教育環境 改善과 관련된 費用보다는 人件費가 64%라면 굉장히 높은 比率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外國과의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教育 관련해서 營利法人, 또는 非營利法人, 그러니까 一般 私學法人을 제외하고 營利團體나 非營利團體 또 一般 社會教育團體에 支援하는, 支援團體가 있다면 그 支援額數와 內譯을 좀 나중에 資料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質疑는 한 가지인데요, 質疑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實業系 高校 比率을 얘기하는 19페이지에 實業系 88個校 中에는 特殊目的 14個校가 있습니다. 이 14個校가 앞에서 얘기한 外國語高나 體育高 이런 것을 다 包含하는 것인지 그것은 直答으로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趙相勳 委員; 그러면 外國語高等學校는 다 人文系에 속하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네.

○趙相勳 委員; 알겠습니다. 質疑를 하겠습니다

현재 實業系 高校의 比率에 대한 問題입니다. 제가 教育廳 관계자분하고 또 저희 管內 東部教育廳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地方都市의 경우와 또 서울과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게 教育部에서 얘기하는 50 對 50의 比率을 맞추기가 굉장히

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地方都市의 경우에는 實業系 人文系の 比率을 50 對 50으로 상당히 接近해 있기도 하고 또 맞춰나간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나뉘어진 60 對 40의 比率, 이것조차도 정확히 學生들의 選好度에 따르면 그것보다도 훨씬 人文系에 대한 選好度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一線 中學校 校長先生님을 몇 분 만나서 들어봤을 때 中學校 卒業生 中에 한 80%는 人文系를 進學하고 싶고 나머지 20%만이 工高나 實業系로 進學을 원한답니다.

그리고 실제 實業系나 工高로 進學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상당수는 人文系 進學의 문턱이 높고 實力을 갖추지 못해서 밀려나간 형식으로 實業系 高校에 進學을 하게 된답니다. 고로 이런 친구들이 주로 자기 또래집단에 있어서 劣等感이나 疎外感 때문에 工高에 가서 쉽게 問題兒로 轉落한다는 어떤 中學校 校長先生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教育部에서 현재 50 對 50, 서울地域에서 人爲的으로 50 對 50이라는 實業系 教育 強化라는 指針이 과연 서울의 형편에 또 서울地域이란 어떤 特殊性에 맞추어서 서울시 教育廳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어떤 目標인가, 또 그것도 당장 政策에 맞춰서 人文系 高校 增設 抑制, 또 工高의 持續的인 擴張, 또 때로는 便法을 동원한 어떤 숫자 맞추기까지 해야 될 사항인가 이것을 判斷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게 관련된 事案인데요, 현재 遁村工業高等學校가 認可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設立에 推進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同僚委員이신 魚潤慶 委員님께서 江東地域에 人文系 高等學校, 특히 女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江東地域, 또 저희 廣津區地域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신흥 아파트지구가 많이 서있는 곳에서는 學校施設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역시 江東에서도 人文系 高等學校가 부족하기 때문에 長距離 通學을 많이 했고요, 學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 廣津區나 東部教育廳 管內로까지 長距離 通學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몇 년 전에 遁村工高 敷地로 學校敷地가 있었는데 그것을 遁村工高로 일단 認可를 받고 江北에 있는 廣陽高等學校를 換置를 해서 遁村工高를 遁村高等學校로, 또 廣陽高等學校를 廣陽工高로 하는 어떤 方針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해당 學校長과 또 地域住民에게도 告知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遁村工高로 認可받은 學校施設이 遁村高等學校로 바뀔 수 있는 어떤 法的根據가 있는가, 換置라고 표현을 저는 들었었는데요, 遁村工高로 認可받은 學校가, 글썽 認可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認可받은 學校가 人文系 高等學校로 바뀌는 어떤 法的인 根據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좀 놀라운 것은 東部教育區廳, 즉 換置되는 對象 學校인 廣陽高等學校가 있는 東部教育區廳에서는 사실 서울시 教育廳의 換置方針에 대해서 内部的으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確認했을 때 저희 廣律區에서 廣陽高等學校로 進學하는 인근의 中學校 校長先生님들까지도 最近에 풍문에 듣고 그 사실을 저한테 確認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地域教育區廳에서 初·中等教育課程을 專擔하고 高等學校 이상 課程은 서울시 教育廳에서 專擔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地域教育廳의 의견이나 또 인근 學校長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그런 決定을 내리고 또 政策

的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좀 對答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런 意見 收斂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該當 高等學校長은 물론이고 인근의 中學校 校長先生님 포함해서 先生님들 그리고 地域住民까지도 대단히 반발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再開發地域이 저희 地域에도 속하기 때문에 最近 學生數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人文系 高等學校를 하나 줄였을 때 그 옆에서 收容할 수 있는 인근 高等學校의 餘裕施設이 없거든요.

이런 점을 勘案해서, 적어도 한달 전까지는 제가 確認한 사실인데 廣陽高等學技를 工高로 轉換하는 方針에 대해서 取消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좀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여쭙 보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載震 委員님.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補習學院 改正에 있어서 지금까지 實行하는데 있어서 어떤 瑕疵는 없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지 그 問題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國民學校 2部制 授善을 하고 있는 學生數가 約 6,900名에 달하여 學生數의 0.8%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2部制가 확실히 解消되며 또한 횃수만 來年, 來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解消될 수 있는 根據를 대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4年 동안 계속 이야기해 온 新林8洞에 있는 國民學校 設立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進陟이, 新設할 수 있는 그러한 進陟이 돼 가고 있는지 그 問題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또한 市立幼稚園 設立 권장을 하는데 畧細性이 있

는 地域부터 먼저 우선 해서 幼稚園 設立을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首都女高가 銅省區 보라매공원 空軍士官學校 敷地로 移轉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空軍士官學校가 移轉을 해서 몇 학년부터 正常授業을 할 수 있는지 이 問題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林靜枝 委員, 말씀하세요.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 입니다.

世界 經濟大國 10位 안팎의 말이 오르내리고 있고 심지어는 G7, G8이라는 말도 있는데 中學校 無償教育은 언제쯤 實施할 計劃인지요? 地方부터 實施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計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委員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金亨根 委員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金亨根 委員; 金亨根 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은 質問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業務報告書를 보면 우리 나라 서울의 教育이 앞으로 몇 年 이내에 굉장히 잘될 것 같이 쓰여 있습니다. 4年 前に 議會에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一線學校에 나가 보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騒音에 대한 對策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 學校, 한두 學校는 防音壁을 設置함으로써 騒音防止施設을 했다라는 그러한 報告의 말도 듣고 있고, 또 그런



報告書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學校들이 이런 騒音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하면 그 對備가 너무나 미비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 教育이라는 것이 가장 根本的으로는 教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教室에 앉아 있는데 學生들이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면 거기에 앉아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 여름에 창문을 닫아 놓았을 때 그것은 완전히 지옥입니다. 學生들을 그런 지옥 속에다 가두어 놓고 教育을 어떻게 한다고 아무리 여기서 좋은 말로 해 봐야 그것은 空念佛이고 소귀에 경읽기인 것입니다.

제가 一例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애가 어느 中學校에 다닙니다. 이제 中學校 3學年입니다. 中學校 1學年 때부터 教室에서 授業時間에 授業이 잘 안 들린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防音壁을 設置하려고 굉장히 努力을 했지만 여러 가지 理由를 들어서 여태까지 設置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영원히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50年, 100年이 지나도요.

그렇다 그러면 教育의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을 해야 될 것입니다. 教室을 때려부수고 다른 데다 짓든지, 아니면 學校를 다른데로 移轉하든지, 그런 根本的인 對策 없이.....

여기 보십시오. 45페이지에 보면 다 알고 있어요, 現況은 어떻고 問題點이 무엇인지. 解決策은 안 나와 있습니다. 만날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根本的인 對策이 마련 안 되면 다른 教育을 아무리 잘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學生들이 學校에 가 가지고 授業을 못 듣는데요. 根本的인 對策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거리가 좁아 가지고 防音壁 設置를 못한다 그러면 建物을 다른 데다가 지어야지요. 아니면 學校를

옮겨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敎育廳에서는 根本的인 對策을 講究하도록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李英順 委員; 李英順 委員입니다.

放課 後 兒童保護에 대한 對策에 대해 質問을 하겠습니다.

低所得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地域이라든가, 또 缺損家庭, 또 맞벌이 家庭의 아이들이 放課 後에 여러 가지 危險한 環境에 放置되어 있기 때문에 學校 敎室을 오픈해 가지고 放課 後에 그 兒童들을 指導할 수 있는 이런 對策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藥物中毒이 이제는 中·高等學生뿐만이 아니라 國民學生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低所得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學父母들이 學院이라든가 여러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형편도 못 되는 그런 家庭들 같은 경우에는 放課 後 兒童保護가 더욱더 절실히 要求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女性團體에서도 이러한 問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要求가 되고 있기 때문에 政策으로도 많이 建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 對處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許光泰 委員님, 말씀하세요.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정말 얼마나 敎育이 重要的가를 關係公務員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再認識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金亨根 委員께서 質問을 해 주신 部分에 대한 促求와 아울러서 補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自動車에 의한 騒音도 대단히 심각하긴 합니다만 航空

騷音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보지 않은 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5分마다 뜨고 내리는 飛行機 航空騷音 때문에 學校에서 先生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學生들이 귀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심각성이야말로 그 地域에 있는 學校, 33個 學校는 대단히 그 심각성을 뭇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關係廳이나 關係公務員들은 理由만 달고 그냥 뒷짐만 진 그런 현상만 보여서 지금까지 그 責任感까지도 느끼지 않는 듯합니다. 물론 騷音에 대한 차이는 學校마다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陽川區에 관계된 江西·陽川地域의 騷音被害 對象學校를 個人的으로 調査도 했고, 또 그 學校에 대한 對策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教育廳에서는 어떠한 對策을 정말, 실현 가능한 對策을 提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具體的으로 提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더 이상 委員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지금 子女들을 가지고 계시는 여기 關係公務員들이나 委員님들은 상당히 그 教育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發展하려면 教育이 改革돼야 되고 教育이 앞서서 發展돼야 된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는 이런 진지한 質問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答辯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는데요, 關係公務員님들께서는 성실하게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附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늘 이 委員會에 教育監님이 꼭 나오셔서 서울市 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責任지고 있는 教育監님께서 이렇게 議會에 와서, 진지

한 委員님들의 이 質疑 場所에 안 나오신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우니까 다음에 이것을 꼭 留意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셔서 人事를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6時 13分 會議中止)

(17時 23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順德; 座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構 3打)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네, 말씀하십시오.

○劉大運 委員; 지금 이 자리에 말이지요, 바쁜 日程에도 불구하고 教育監께서 出席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出席한 소감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企劃管理室長의 答辯을 듣기 전에 아까 懇談會 內容대로 日程에 따라 바쁜 분들은 答辯과 관계 없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 補充質疑를 먼저 주신 후 答辯을 듣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運營이 될 것이라 思料되어서 議事進行發言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參考해서 運營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그러면 教育監께서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企劃管理室長이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는데, 補充質疑를 하실 분은 企劃管理室長님 나오셨을 때 補充質疑를 꼭 하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李俊海; 教育監 李俊海입니다.

지난번 開院式 때 전체 會議에서 인사를 드린 이후에 곧바

로 여러 委員님께 별도로 인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不察로 오늘에서야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사실 아침에 제가 나와서 미리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全國教育監會議를 召集했기 때문에 時間이 重複이 되어서 이제서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報告를 받았습시다만 給食學校 施設 關聯 非違事案이 發生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바쁘신 委員님께 여러 가지 心慮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再發되지 않도록 制度的인 裝置와 아울러서 學校運營者들의 精神改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사실상 市議員님, 특히 文化教育 分科 委員님들의 指導와 鞭撻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推進해 왔습시다만 市民이나 혹은 委員님들의 기대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는 第4期 서울市議會 出帆에 맞춰서, 특히 여러 委員님의 指導鞭撻과 意見을 충분히 教育施策에 反映을 해서 그 동안에 미흡했던 그러한 점을 完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4年 任期 中에 3年을 마치게 됩니다. 돌이켜 볼 때 3年 동안 이렇다 할 만한 業績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늘 송구한 心情으로 지금 勤務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就任을 해서 소위 서울教育指標라고 내세운 것이 未來 指向의 道德的 創造的인 民主市民 育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몇 가지 重點事業을 展開를 했습시다만, 또 그 사이에 여러

委員님께서 적극적으로 支援해 주셔서 나름대로 일부 成果는 거두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任期 1년이 남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벌여놓았던 여러 가지 業務, 그리고 새로이 이번에 發表된 教育計劃 方案들이 착실히 뿌리내리도록 最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들을 따뜻이 보살피 주시고 指導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큼 또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애정어린 忠告 指導를 거듭 付託올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계속해서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劉 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質疑가 많아서 答辯이 오늘은 좀 어렵다해서 書面答辯으로 諒解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書面答辯으로 같이 받아야 될 事案인 것 같아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國會의 監查院 資料를 보니까 서울시內 國民學校에 엄청난 危險施設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현재 李俊海 教育監이 在職中에 施設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서울시 教育廳의 管理 不足이나 또는 能力 不在에서, 힘의 原理가 중요하겠지요. 힘의 原理에서도 不足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無責任하게 國民學校 校庭에 이런 施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資料를 받은 다음에 구체적 質疑를 하겠습니다만 國民學校 校庭에 도시가스 集合施設을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

을 단 한 분의 學父兄도 아는 분이 없어요. 어제 밤새 監査院 資料를 뒤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서울市內 初·中·高等學校에 도시가스 集合施設은 몇 군데나 있는지, 구체적인 學校名과 位置를 명시해서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施設은 하나 爆發하면 반경 최소한 5km이내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매우 危險한 施設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給食 不條理問題가 터져 나오니까 조금 發想의 轉換을 한 것 같은데 그 發想의 轉換이 本委員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할까요.

圖面은 사전에 國民學校 校長이 결정을 해서 調達廳으로 보내는 그런 契約 締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고 있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調達廳에서 契約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調達廳에 엄청난 物量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昨年 統計 調達廳 내자국에서 資料를 구해서 보니까 調達廳에 갔다가 뒤로 백된 것이 많아요. 백된 이유는 業務가 밀렸음으로 인한 返戻입니다. 그것도 校長先生이 返戻公文을 보내서 返戻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위치가 되어 버렸어요.今年에도 그런 事態가 빚어지리라 本委員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組合과 隨意契約을 하면서 不條理가 생겼다면 調達廳으로 넘기는 不條理는 어떻게 막아요? 이미 그 業體를 選定해서 넘겼는데, 그 圖面에 말이죠 業體가 指定이 되어 있어요. 이 不條理, 第2의 不條理 또 터져 나옵니다. 같은 類型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永久的으로 하여튼 뿌리 뽑힐 때까지 캐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調達廳하고 각 教育區廳 傘下에今年에 給食施設

할 學校別 圖面을 校長先生님께서 확정을 해서 調達廳으로 넘긴 것이 있습니다. 이 業體名, 學校名 이것을 서울市內 各 教育區廳別로 精確한 資料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經위 에는 金額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金額까지도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여덟가지 정도를 要求한 것 같은데 같이 한꺼번에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答辯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委員님들이 決定을 하셨는데 너무 저희들이 質疑를 많이 해서 오늘 다 그 質疑에 대한 答辯을 이 자리에서 들으려면 상당한 時間을 저희들이 할애받아야 되기 때문에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시고, 부득이 꼭 오늘 答辯을 들으셔야 되겠다고 하는 委員님들이 계시면 그 問題만 간략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시는데 이 答辯 資料는 速記錄에 掲載하게 하고 이것은 이번 會期 內에 書面答辯 資料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企劃管理室長 答辯드리겠습니다.

劉大運 委員님께서 補充質疑까지 해서 여덟 가지의 質疑事項이 계셨습니다. 전체 書面으로 答辯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林靜技 委員님께서 세 가지를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書面으로 答辯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梁東鎬 委員님께서 두 가지를 質疑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零細地區의 給食學校를 좀 우선 設置해라, 또 給食運營委員會의 學父母 負擔을 없애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來年度 給食施設을 위해서 지금 서울市에 270億원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 問題만 解決되면 우선 저희가 脆弱地區부터 선별적으로 處理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道峰區에 高等學校가 몇 개 있고 앞으로 新設할 計劃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人文系 高等學校를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道峰區에는 道峰商高 公立이 하나 있고 나머지 私立이 넷이 있는데 거기에 女子高等學校는 人文系가 있습니다만 男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學生 收容計劃이 前提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 政府施策이 1년에 80萬이 大學試驗을 봤다가 결과적으로 4·50萬의 再修生이 생겼다, 이것으로 인해서 再修生問題가 대두되고 또 靑少年 非行問題가 社會問題化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당초에 97년까지 人文 對 實業을 50 對 50線으로 維持해서 무조건 能力이 있든 財力이 있든 없든 大學에 가고 보자는 그러한 教育觀을 우리가 좀 現實적으로 鈍化시키자, 教育的인 측면에서 產業現場으로, 그러니까 職業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遊休人力이 없이 바로 產業現場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역시 實業教育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人文 對 實業을 당초에는 50 對 50線으로 했습니다만 서울이라는 地域은 특수한 地域的 與件 때문에, 또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전부가 大學에 보내자는 欲求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推進하기가 상

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40 對 60의 比率을 저희가 98년까지는 45 對 55, 그러니까 人文을 55로 하고 實業을 45정도는 그래도 올려놔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人文高等學校의 學級 增設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피하는 方向으로 政策을 誘導하고 있다는 말씀을 理解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맥락에서 아까 趙委員님께서는 遁村高等學校가 遁村工高로 되고 그 다음에 廣陽高等學校가 廣場工高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所見을 묻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理解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廣陽地區에는 人文系高等學校가 3個가 있습니다. 그래서 可及的이면 그것을 한 개 정도는 實業系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國家 장래로 볼 적에 그것이 衡平 있게 유지가 되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칠 경우에는 問題가 있지 않느냐.

물론 實業系 高等學校가 誘致되는 경우에 地域적으로 다소 問題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教育的으로 解決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도 全體를 地域住民이 전부 人文系만 選好하고 한다고 해서 人文系만 만들어 놓으면 結果적으로 나중에 그 學生들이 卒業을 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하는 장래문제를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저희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욕심입니다만 地域에서 그러한 懸案問題가 發生하면 우리 文化教育委員會 委員님들께서는 그것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곤란하더라도 먼 장래로 보아선 그

사람들의 進路를 여기서 開拓해 주지 않으면 큰 問題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立場에서 그것을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廣陽高等學校 工高問題는 아직 政策 確定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方向으로 推進하고 있다는 것을 理解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魚潤慶 委員님께서 네 가지를 質問을 주셨습니다. 여기 역시 저희가 書面으로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徐在浣 委員님께서 두 가지를 質問주셨는데 이것은 委員님 자신이 먼것년부터 書面으로 要求하셨기 때문에 書面으로 충실하게 答辯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許光泰 委員님께서 일곱 가지를 質問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書面으로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善宰 委員님께서 네 가지 質問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書面으로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鄭韓植 委員님께서 일곱 가지의 質問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書面으로 答辯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李載震 委員님께서 여섯 가지 質問事項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書面으로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林靜技 委員님께서 中學校 義務教育이 언제부터 될 것이냐는 質問을 주셨는데 현재 邑 面 郡 단위까지 義務教育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都市地域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亨根 委員님께서 航空騒音에 대한 根本對策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許光泰 委員님도 같은 趣旨로 물어 주셨는데 저희가 航空騒音뿐 아니라 道路騒音이나 鐵路騒音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豫算이 많이 投入되는 그런 問題가 있어서 例年에 解決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航空騒音 對象學校가 42個校인데 그것도 이제 1種 地域, 2種 地域, 3種 地域으로 나누어서 지금 騒音振動規制法施行規則에 보면 1種 地域은 90WECPNL 이상이 되어야 1種 地域이 되고, 그 다음에 2種 地域은 90에서부터 95WECPNL 미만 이렇게 되어서 3種 地域은 현재 對象이 안 됩니다만 2種 地域에 있는 學校 中에서 今年에 신원中學校하고 신원國民學校 그 다음에 光明高等學校 이 3個校는 지금 서울航空管理廳에 90億원이 追更에 反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餘他 3個 學校가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推進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航空騒音은 사실 根本적으로 解決하기가 어려운 技術的인 問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臨機應變式으로 이중창 設置를 하면서, 문을 꼭 닫고 안에다 煖房施設을 그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防止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技術上의 어려움이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航空騒音에 대한 對策 方案이, 그런 것을 推進해 본 實例가 없기 때문에 技術上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울航空管理廳에 要請해서 航空騒音을 解消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具體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問題는 저희가 좀더 深思熟考해서 書面으로 答辯을 올리도록 諒解를 구하겠습니다.

○金亨根 委員; 委員長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航空騒音이 아니고 一般 道路騒音, 鐵道騒音 거기에 대한 質問을 했습니다.

答辯이 航空 騒音에 局限되어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航空騒音은 許光泰 委員님께서 말씀하셨고.....

○金亨根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根本的인 對策이 필요하

다는 얘기지, 지금 하고 있는 現況을 말씀드려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根本的인 對策, 그것을 앞으로 어떤 方向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지금 하나의 方案이 이중창을 하고 煖房하고 冷房을 제대로 해 주는 方案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아예 教室을 때려부수고 騒音 없는 곳으로 教室을 다시 짓는 方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學校 자체를 없애고 다른 데다가 場所를 물색하는 方法도 있을 것이고, 그런 方法을 택하지 않으면 이것은 5年, 10年, 50年, 100年이 되어도 解決이 안 되는 問題입니다. 알면서도 안하고 있으면 職務遣棄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質問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바람직한 方案이 있다면 答辯해 주시고, 그대로 推進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그러면 그 問題는 저희가 좀더 深度 있게 研究를 해서 書面으로 答辯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許光泰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道路 周邊과 鐵路 周邊의 騒音關係는 原則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學校가 既存 設立된 후에 開設된 道路나 鐵路에 대해서는 鐵道廳이나 서울市에서 解決을 하도록 되어있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道路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學校敷地를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하니까 그 周邊에다 지은 學校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年次的으로 豫算에 반영해서 저희 자체가 解決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오늘 教育廳所管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答辯을 이것으로 終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鄭韓植 委員, 말씀하세요.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教育廳 業務報告 中 委員님들의 答辯準備 위하여 많은 時間이 지금 遲滯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議事日程 中 第3項 서울特別市學生教育院設置條例案 外 4件은 더욱더 심도 있는 審査를 위하여 8月 19日 10時 開催되는 第3次 文化教育委員會에 附議 審査하고자 議事日程 變更을 提案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방금 鄭韓植 委員으로부터 議事日程 變更案이 發議되었습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再請이 있으므로 議題로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 中 第3項 이하 第7項까지는 더욱 深度 있는 審査를 위하여 8月 19日 10時 開催되는 第3次 文化教育委員會에 附議, 審査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을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51分 散會)

---

○出席委員

安順德 鄭韓植 孫馥 金乙東

金亨根 徐在浣 梁東鎬 魚潤慶

劉大運 李善宰 李英順 李載震  
林靜技 林鐘化 趙相勳 許光泰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金鎮炫

教務處長 姜哲圭

企劃研究室長 金尙培

서울學研究所長 安斗淳

서울特別市教育廳

教育監 李俊海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  
(書面答辯)

(뒤에 실음)

.....